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에이즈 발병의 가장 큰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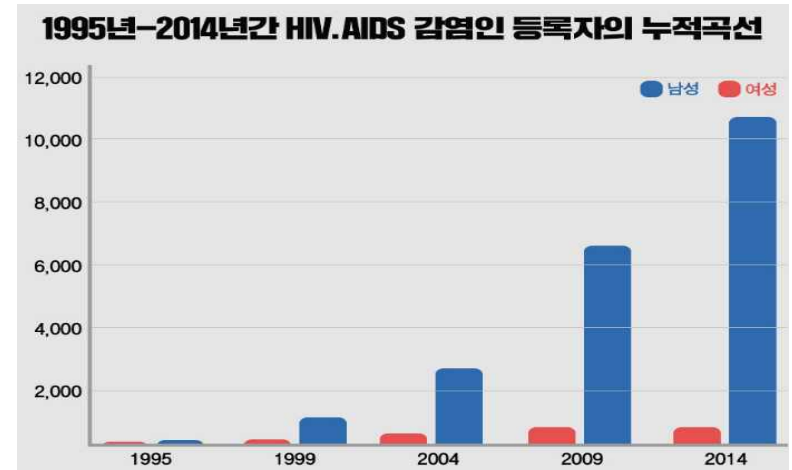
동성애를 그린 고대 그리스 벽화 중 일부

남성 동성애(同性愛, Gay)가 한국 급속한 에이즈 발병의 가장 큰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흔히 에이즈 감염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 이성(異姓) 간 성(性) 접촉은 다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 내 에이즈 감염 경로는 ‘이성간 성 접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가 동성애를 공개하기 힘든 사회 분위기에서 감염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당국은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혈액 제제에 의한 에이즈 감염은 1995년 이후,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은 2006년 이후 감염 사례가 전혀 없다. 현재 에이즈 감염 경로는 100% 성(性) 접촉이며 이중 다수는 이성(異姓) 간 성(性) 접촉이 아니라 남성 동성애(同性愛)라는 것이다.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배종면 교수는 최근 대한보건협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남성 동성애(同性愛)의 에이즈 위험성을 제대로 교육하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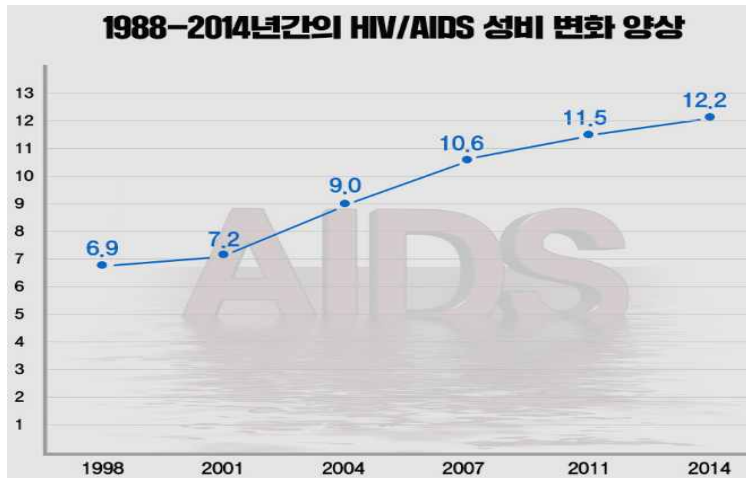
배 교수의 조사결과 지난 30년 동안 에이즈에 감염된 한국인은 총 11,504명이며 이중 남자가 10,630명(92.4%)이다. 그런데 1992년까지 에이즈 감염자 남녀 성비(性比)가 8.4였는데 2014년 12.2까지 계속 증가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남성 여성 간 정상적인 성관계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에이즈 남녀 성비는 1:1에 가까워져야 한다.



가로축 : 연도, 세로축 : AIDS 감염인 등록자 수

배 교수는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환자가 남성에 집중되었다는 사실과 남성 쪽으로 일반적으로 기울어진 성비(性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란 해석이 외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남성 동성애자 에이즈 발생 비율이 높다는 것은 외국에서도 이미 밝혀진 내용이다. 미국 미네소타주 보건성 자료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를 하는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에이즈 감염 비율이 60배 이상 높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보도지침을 통해 동성애가 에이즈의 중요한 원인이란 사실을 언론기관이 보도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질병관리본부 등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에이즈 관련 부분이 통째로 빠져 있다. 소위 성(性)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 왜 다른 질병 통계는 발표하는가?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상관없다는 것인가?



가로축 : 연도, 세로축 : HIV/AIDS 감염자 남녀 성비

배 교수는 동성애의 에이즈 위험성을 알리는 것은 성(性) 소수자에 대한 차별 행위가 아니라 범국민적 공중 보건학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흡연자에게 폐암의 위험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15-24세 젊은 남성들에게 동성애의 에이즈 감염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에이즈 감염자가 3,40대 중년에 많았지만 지금 1,20대 젊은 층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5~19세 에이즈 감염자 증가율은 20%, 20~24세 증가율도 15%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특유의 항문 성교로 인해 성기 점막의 상처를 통해 스며든 혈액으로 쉽게 에이즈에 감염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항문 성교 시 콘돔을 3개 이상 착용해야 안전하다는 내용을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교육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은 에이즈 감염자가 이미 10,000명을 넘었다.(1만 명이 넘으면 UN이 에이즈 국가로 분류) 게다가 젊은 층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태국처럼 한국도 에이즈가 만연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남성 동성애자를 위해서라도 무방비 상태의 항문 성교가 매우 위험하며 생명과 직결된 의학적 진실은 제대로 알려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초희 기자 출처 / 인터넷 메디칼 방송국 비온 뒤 2016.7.9.